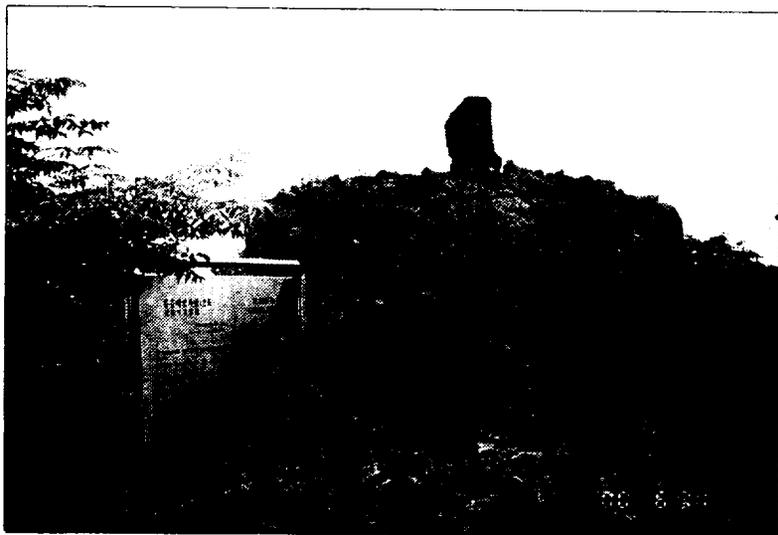


■ 현지학술조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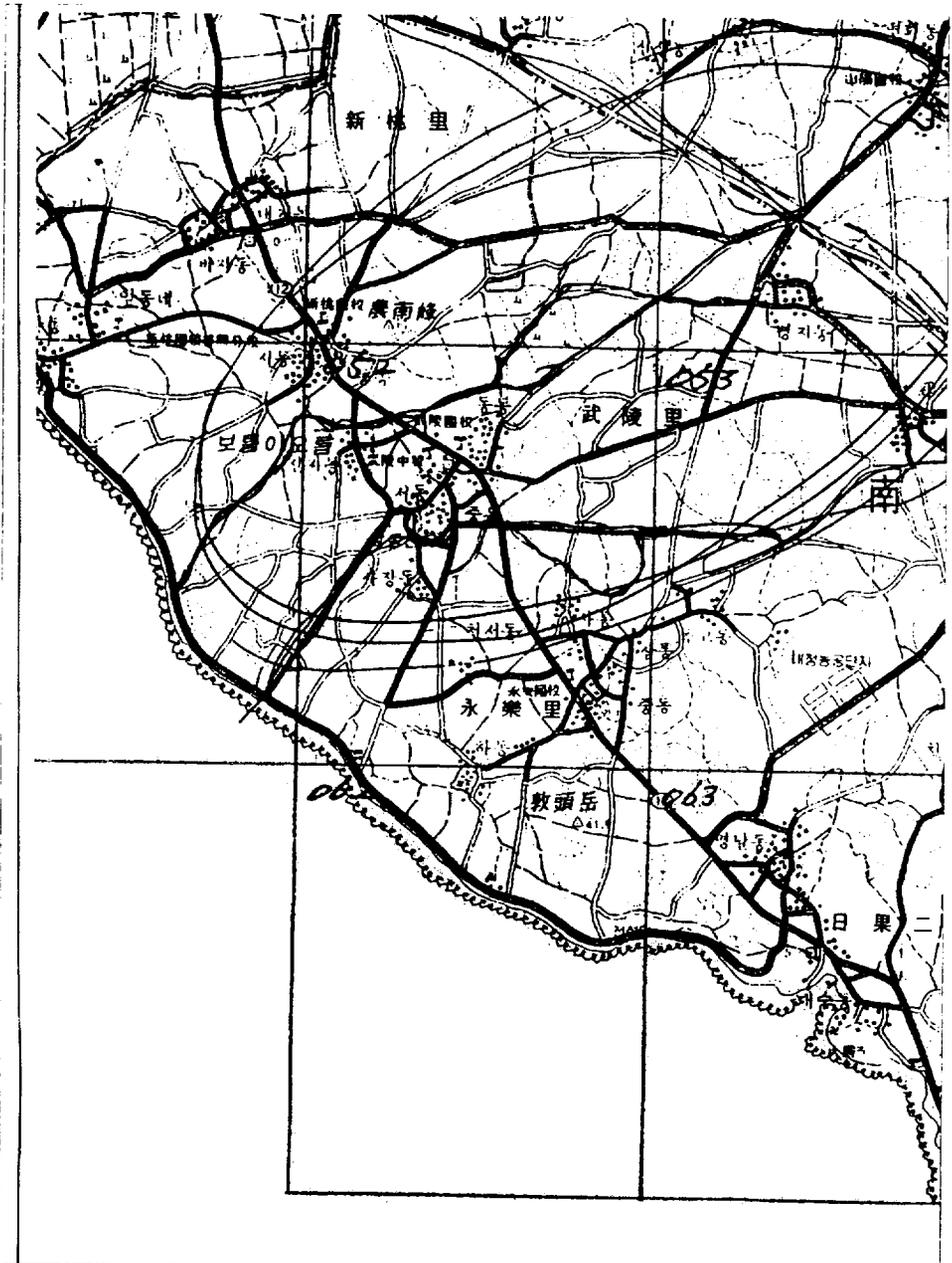
## 南濟州郡 大靜邑 武陵里

2000년 8월 9일 ~ 8월 12일 조사

● 조사경위 / 사회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신앙 ●



<방사탑>



## 〈조사 경위〉

구비문학의 현지학술조사는 문학이 생활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문학을 포함한 문화 일반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 문화 창조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있는가 등을 따지는 작업으로 구비문학 자체의 연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현지학술조사는 1972년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를 시작으로 2000년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를 주축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번 현지학술조사의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조사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도시 문명이 많이 보급되지 않는 곳을 그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번 학술조사의 지역을 무릉리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정읍 무릉리는 도내에서는 드물게 벼농사(논농사)를 짓고 있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구비문학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무릉리는 1리와 2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따라서 한 마을 안에서 거리에서 오는 구비문학의 차이점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다양한 농업과 잠녀들의 물질을 병행하고 있어 어휘, 민요 등을 많이 채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로 비록 무릉리가 마을 규모가 방대하여 조사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 선정이 끝나고 6월 30일과 7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대정읍사무소, 무릉리사무소에서 지도 및 마을 현황과 주 생업활동 등을 알아보았고, 이장님과 노인회 장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제보자를 소개받았고, 각 팀별로 조금씩

조사를 하였다. 2차 예비조사에서는 좀 더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행해진 이번 학술조사는 2000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사회배경, 방언, 설화, 민요, 신앙반으로 나누어 실시를 하였고 녹음과 영상 채록의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강영봉 교수님의 지도하에 학술조사에 관심이 많은 학우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오창명 선생님 등은 조사 기간 내내 옆에서 조사 학생들에게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셨고, 또한 많은 동문 선배님들의 격려를 해주셔서 학생들은 아주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분들 외에 조사에 도움을 주신 무릉리의 여러 제보자님들과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신 김석원(96) 학우의 부모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조사에 임해준 학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안은 학번)

<조사반편성>

지도교수	강영봉					
팀 장	송성남(95)		총 무	장현석(96), 이현정(98)		
	사회배경	민 요	방 언	설 화	신 앙	
조사반장	강동완(94)	고경실(98)	진연희(98)	허유미(98)	문숙정(98)	
조사반원	송평수(98)	고은임(99)	김민정(98)	강태우(99)	오승주(97)	
	성귀남(97)	양수찬(96)	김영수(94)	김민찬(95)	백승주(94)	
	이유미(98)	김현성(96)	이길하(95)	이은주(98)	손기범(94)	
	강진혁(99)	강경화(97)	강선하(97)	양현주(99)	이미라(98)	
	김영희(00)	양정운(97)	김경필(00)	고민지(00)	문지영(98)	
		김숙희(98)	정해준(00)	김경숙(00)	홍인선(98)	
		고정용(00)	김순자(00)	김형주(00)	문석현(00)	
영상취재	하창훈 (95), 좌성한(94), 김석원(96), 김명주(00)					

## 社會背景

### 차 례

1. 지리적 환경
2. 역사적 배경
3. 인문적 환경
4. 산업 구조

### 1. 지리적 환경

무릉1리는 대정읍 서부 지역의 중심지로 해안 및 중산간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있는 마을로 서쪽으로 신도1리, 동쪽으로 영락리와 접해 있고 읍 중심지와 8.1km, 군청소재지와 40km 떨어져 있다. 마을 주변에 광활한 농경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 밭작물(감자, 마늘, 콩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 마을이며 1970~80년대 식량생산 독려 때는 벼를 많이 재배했었다.

제보자 황덕익님에 의하면 무릉리는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이 귀했고 물통을 파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맨 처음 백씨가 들어와서 마을이 설동됐을 때 앞논물(현재 무릉1리 2129번지)에다가 물통을 파고서 허벅으로 물을 운반했다. 그 이후 사람들이 많이 정착함에 따라 물 동산, 끈물 동산, 송당, 알송당 등 여러 개의 물통을 만들었다.

무릉1리의 각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매앞

- 위치 : 무릉1리 3833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옛날 김해 김씨의 조상이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낚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때 낚그릇을 제작하던 가마가 있던 곳의 앞이라는데서 연유한다.

### 2) 고래통

- 위치 : 무릉리 해안도로-앞바닷가 60m 지점
- 유래와 현황 : 마을 앞바닷가의 암반에 길쭉하게 패인 우물같은 웅덩이가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옛날 밀물에 휩쓸려 고래가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어 물이 빠져나가자 이 웅덩이의 입구가 너무 좁아서 그만 갇혀버리고 말았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라 한다. 이 웅덩이 모양과 크기로 봐 고래 한 마리쯤은 거뜰히 들어갔을만 할 뿐 아니라 물이 워낙 깊어 이름에 걸맞다.

### 3) 곤물

- 위치 : 무릉1리 2741번지. 곤물통 이라고도 함
- 유래와 현황 : 이 일대의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했던 샘으로 주변의 다른 식수원에 비해 가장 깨끗하고 물맛이 좋아서 <고운 물>이라는 뜻으로 불리워진 이름이다. 고운 것을 제주지역어로는 <곤 것>이라고 하며 백미밥을 <곤밥> 이라고 한다. 이 샘의 면적은 780㎡이다.

### 4) 논쟁이동산

- 위치 : 무릉1리 3563번지 일대. 해변가 쪽
- 유래와 현황 : 이 동산의 지형지세가 물고기 아홉동가리의 형세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논쟁이>는 아홉동가리의 제주지역어이다.

### 5) 모동장

- 위치 : 무릉리
- 유래와 현황 : 이 목장은 이미 고려조 말기부터 원나라에 의해 목장으로 써오다가 조선조에 이르러 이미 제주 전역에 설치한 열두 개의 국마장 외에 특산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목장들이 설치되었는데 1850년 경에 이 마을을 중심으로하여 '신도리' 경에는 서장을, '무릉리' 경을 중장, '영락리' 경에 남장등 3장을 두었고 이를 통틀어 '모동장'이라 불렀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이 목장은 목초가 좋은 평야지대로서 흑우와 말을 길렀으며, 흑우는 육용으로 말은 군마로 진상하였다.

### 6) 물동산/물동산일레당

- 위치 : 무릉1리 3005번지
- 유래와 현황 : 당이 있는 동산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는 능선으로 면적이 약 1,088㎡에 이르는 물통이 3개가 있어 이에 연유한 이름이 '물동산'이다. 세 개의 물통 중 두 개는 주민의 식수로, 다른 한 개는 마소의 급수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매립되어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다. '모슬포' <문수물당>에서 가지갈라 온 당. 당신 <일레할망>은 분향신으로 무릉1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관장한다고 한다. '물동산' 오른쪽 귀퉁이에 타원형으로 돌담을 쌓아 조성한 이당 입구에서 오른쪽에 신이 강림하는 나무와 제단이 있으며 이에 연유한 이름이 '물동산일레당'이다.

### 7) 부사리

- 위치 : 무릉리3759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김해 김씨 조상이 이 마을에 정착하여 소를 목축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숫소만 길렀다고 하여 연유한 이름이다. 넓은 들판으로서 흙도 좋고 서리도 안내려 지금은 감자농사가 잘된다. <부

사리>는 나이를 꽤 먹은 부록소를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 8) 사장동

- 위치 : 무릉리 3046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옛날 이 지역의 청장년들이 무예를 연마하며 활을 쏘던 터 '사장밭/화살터'가 있는데 근처에 마을이 형성되니 이에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9) 새통

- 위치 : 무릉1리 2315번지
- 유래와 현황 : 옛날 마을이 설촌하여 시간이 흘러 지역주민의 수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식수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일대에서 가장 빗물이 많이 고이는 장소를 골라 새로이 물통을 조성한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무릉리에서는 제일 깨끗한 물이고 이 물로 산채 지내고 중요한 재를 지낼 땐 이물을 사용한다.

### 10) 서넉동산

- 위치 : 무릉1리 3128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마을의 서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마을의 형국은 '앞물통'을 향해 개구리가 앉아 있는데 뱀이 이를 목격하고 머리를 쳐들어 포식하려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 동산은 바로 뱀의 머리에 해당하는 동산인데, 마을 중앙에서 '왕가동산'과 대칭되는 방향인 서북서쪽에 무릉1리로 통하는 마을 어귀 오른쪽길가에 자리잡고 있어 기가 강한 동쪽에 비해 취약한 서쪽을 보강해 주고 있다 한다.

### 11) 수마터/수마처

- 위치 : 무릉리 2884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옛날 '모동장'이 설치되었던 시절, 그곳에서 기르는 마

소를 한데 모아 가두어 낙인을 찍던 자리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모동장' 주변에는 이러한 곳이 7-8개 정도가 더 있었다고 한다.

## 12) 쓸대왓

- 위치 : 무릉리 2802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옛날 '사장밭'의 화살 과녁을 매어 단 장대가 바로 이 곳에 있었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옛날에는 대나무가 많이 자랐었다. '쓸대'는 화살과녁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 13) 앞논물/암논

- 위치 : 무릉1리 3128번지
- 유래와 현황 : 마을 앞에 있는 우물인데다 이 지역에 있는 논에 물을 대는 역할도 하므로 이에 연유한 이름이다.

## 14) 앞므루/앞므을/전지동

- 위치 : 무릉1리 3511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이곳에 1780년대에 남평 문씨인 현좌란 이가 초막을 짓고 살았다. 마을의 앞에 있는 능선이라 하여 '도원'(신도리의 옛 이름)에 속했던 때부터 '앞므루'라고 불리우다가 후에 마을이 형성되니 '앞므을'로 바뀌 불렸으며 한자표기화에 따라 '전지동(前旨洞)'이라 표기한다.

## 15) 죽은드술

- 위치 : 무릉1리 3269번지
- 유래와 현황 : 이 지역은 땅심이 아주 좋지 않아 농사가 잘 되지 않으므로 들판이 죽은 듯 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본래 숲 지대가 많았으나 지금은 경작지가 더 많다. '술'은 '수월'등과 아울러 숲의 제주지역어이다.

16) 천녀의보

- 위치 : 무릉1리 2550번지
- 유래와 현황 : 이 보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쌓아진 둑으로 이 일대의 면적이 무려 7,785㎡에 달하는데 천양이란 이가 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천녀의'는 '천양이'의 변형이다.

17) 초남무이/초남목

- 위치 : 무릉1리 3640번지
- 유래와 현황 : 옛날 이 길목 주변에 상수리나무가 무성하여 숲을 이룬 곳었는데 이에 연유한 이름이다. '초남'은 '초남'등과 아울러 떡갈나무 또는 상수리나무의 제주 지역어이다.

18) 촌물빌레

- 위치 : 무릉1리 해안도로 앞바다
- 유래와 현황 : 이 일대는 현무암 암반지대로 옛날 이 지역 주민들의 소금을 생산할 목적으로 이 곳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물소금, 즉 간수를 만들었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촌물'은 짠물 즉 간수를 일컫는다.

19) 코지빌레

- 위치 : 무릉1리 앞바다.
- 유래와 현황 : 암반으로 형성된 갯바위가 바다를 향하여 길게 뻗어나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20) 큰그슬왓

- 위치 : 무릉1리 4083번지 일대
- 유래와 현황 : 이 밭은 이 일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이면서 밭담이 '갯벽'으로 둘러있는데 다른 경작지에 비해 농사가 잘되어 소

출이 많은 밭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ㄱ술'은 'ㄱ울'등과 아울러 가을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나 농사에 따른 가을수확을 뜻하기도 한다. 'жат벽'은 'жат'이라 고도 하는데 일종의 성으로 외줄로 담을 쌓은게 아니라 성벽 위로 한 사람이 통행할만한 도로를 개설하여 쌓이는 성을 일컫는 제주 지역어이다. 제주에는 일반 성 말고도 국마장으로 이용한 중산간 일대에도 마소를 용이하게 방목할 목적으로 쌓아놓은 'жат'이 있었다.

## 21) 포제동산

- 위치 : 무릉리 2931번지
- 유래와 현황 : 1835년도부터 이곳에서 포제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농사를 주로 짓던 주민들은 풍년을 기원했으므로 '농포제'라 불렀다. 또 가을이 들 때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고, 전염병을 막아 달라고 정월상달에 별제를 지내는 등 모든 마을의 공동의례인 제사를 지내는 등 모든 마을의 공동의례인 제사를 치르던 동산인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그리고 무릉1리에는 오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보름이 오름이다. 대정읍 신도리 일주도로에서 바다 쪽으로 들어간 동네(전지동) 서녘에 나지막이 누워있는 오름이다. 표고는 49m이다. 널따랗게 벌어진 감자밭, 파밭들에 둘러 가운데 길가서부터 느슨하게 비탈진 사면에까지 층층밭을 이루었으며 한쪽으로 소나무들이 다소나마 바람을 막아주고 있다. 보름달 같이 둥글다 하여, 혹은 이곳에 올라 보름달을 바라본다하여 '보름이'라고 부른다하며 한자로도 望山 또는 望月峰이라고 표기돼 있다. 옛날 망을 보았던 오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그런 오름에는 대개 망오름이란 속칭이 붙는다. 보름이 오름은 동산이나 다름없는 나직한 오름이지만 해안평야인 이 부근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직한 지대로, 예전에는 마을제며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던 곳이다. 오름자락 남동쪽에 등돌목, 앞동산뭇이 있고 그 너머 동네는 사장동이다. 등돌목은 동네 청년들이 등돌(들들의 방언)을 놓고 힘자랑을 하던 곳이며, 사장

동은 무사들이 활쏘기를 하던 활터이다. 오름에서 한길까지는 약 500m, 동구 밖 밭담 밑에는 광대나불, 개불알풀들이 피어 있고 뒤돌아본 보름이는 마치 소나무를 의지 삼은 바닷가 초가집 같다.

## 2. 역사적 배경

### 1) 설촌 유래

이 고장에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기록이나 문헌이 없어서 구전에 의하여 알 수밖에 없다.

마을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壬子에 정착하고 甲寅에 설동했다고 하나 壬子와 甲寅의 정확한 연대는 알 길이 없다. 계보자에 의하면 이 마을은 宣祖 8년(乙亥年)에 지금의 신도리인 돈포리에서 분향했으므로 설동은 그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마을의 여러 古老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부터 430여년 전인 1552년(明宗 7년) 壬子年에 정착하고 2년 후인 1554년(明宗 9년) 甲寅年에 설동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설동 당시 맨처음 입주한 사람은 백씨라고 하며 첫 경작지는 전담 음요수(前踏飲要水 : 일명 '앞논물') 일대로 추정된다. 현재의 무릉리 2129번지 일대가 개척지인 셈이다.

그 후 1575년(宣祖 8年) 乙亥年에 本里에 거주했던 鄭尊儀라는 사람에 의하여 마을 이름을 구목리(枸木里)라 부르게 되었다. 구목리는 '구기자나무가 많은 마을'이란 뜻이다.

1654년(孝宗 5年)에 대정현감으로 부임한 邊萬鄉이 현 新挑里의 옛 이름인 屯浦里란 부락명이 좋지 않다 하여 桃源里로 바뀌게 되자 이웃마을인 本里도 당시 李訓長이 주동이 되어 부락민들과 의논하여 부락명을 고치기로 하고 옛 중국고사에 나오는 仙境處인 武陵桃源의 머릿글

자를 따서 구목리로 바뀌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설촌 후의 씨족을 보면 백씨, 정씨, 황씨, 홍씨, 김씨 등이 들어와 살았었는데 그 후 임씨, 이씨, 강씨, 문씨, 오씨 등 많은 성씨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무릉마을을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목리 당시 행정책은 里集綱이라 하여 리 최고 책임자를 政民長, 차위에 尊儀, 農監, 紀察, 그밑에 下召人을 두어 리 행정을 펴 나갔다.

외침을 막기 위하여 활쏘기 사격연습장과 '솔대왓'이라는 지명이 붙은 쏘대(활쏘기 할 때의 과녁)가 있고 군마를 거두어다 낙인을 찍던 수마터(收馬處)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사장동', '솔대왓'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불리워지고 있다.

1850년경에는 무릉리를 중심으로 하여 모동장(毛童場)이란 관용목장이 있었는데 西場(신도리경), 中場(무릉리경), 南場(영락리경) 등 3장이 있었다고 한다.

『大靜郡誌』(高柄五, 朴用厚 공저)에 의하면 毛童場은 縣 서쪽 15리에 있으니 주위 37리, 馬牛監 名 1인, 群頭 1인, 牧者 18명이었으며 원래는 우마를 함께 방목하고 감목도 따로 있었는데, 그 후 말이 점점 줄어들자 까만소[黑牛]를 사육하기 시작하였으며, 말은 군마(軍馬)로 사용하였고 까만소는 식용으로 국가에 진상하였다고 한다.

## 2) 무릉리 탐과 객사

무릉리 탐은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1리 서동 주거지역 서쪽인 속칭, '암논' 지경에 있다. 지번은 3094, 3094-1, 4097이다. 방사용 탐은 남북 방향으로 4기가 쌓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주거지역의 서쪽지경을 허(虛)하다고 생각한다. 탐은 虛한 지경을 보완하고 액운을 막는다는 뜻으로 축조되었다.

(1) 탐-1 :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안팎의 차이가 없는 지형에 있다. 크

기는 밑지름 390cm, 윗지름 216cm, 높이 220cm이다. 현무암 막들로 허튼층쌓기를 하고 있으며 속은 잡석채움을 하고 있다. 표준으로 선정한 쌓음들의 크기는 88×35cm, 66×32cm, 45×45cm, 26×21cm이다. 탑의 상단에는 석상이 세워져 있다. 형상은 남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거칠게 깎아져서 얼굴과 몸, 모자로 구분될 뿐이다. 석상의 방향이 북쪽에 위치해 있는 3기의 탑을 향하고 있다. 석상의 크기는 높이 45cm, 너비 33cm, 폭 21cm이고 얼굴 높이 26cm, 얼굴 너비 23cm, 얼굴 폭 22cm이다. 북쪽의 다음 탑과는 7,022cm 떨어져 있다.

- (2) 탑-2 : 남쪽 평지에 위치한 것으로 평지에 쌓아졌다. 위치는 지번 3099-3, 3100-3이다. 크기는 높이 170cm, 밑지름 460cm, 윗지름 390cm이다. 현무암 막들로 허튼층쌓기를 하고 있으며 속은 잡석 채움을 하고 있다. 표준으로 선정한 쌓음들의 크기는 45×34cm, 36×36cm, 32×28cm, 23×18cm이다
- (3) 탑-3 : 북쪽에 위치한 탑으로 평지에 있다. 지번 위치는 3126-2, 3126-5, 4097번지이다. 크기는 높이 150cm, 밑지름 280cm, 윗지름 240cm이다. 현무암을 대충 다듬어 허튼층쌓기를 하고 있으며 속은 잡석 채움을 하고 있다. 표준으로 선정한 쌓음들의 크기는 85×55cm, 58×37cm, 35×46cm, 36×20cm이다.
- (3) 탑-4 : 북쪽에 있는 탑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지번은 3126-1이다. 크기는 높이 185cm, 밑지름 300cm, 윗지름 210cm이다. 쌓음들은 65×73cm, 47×24cm, 35×25cm, 30×19cm이다. 탑-3과는 394cm 떨어져 있다. 객사라하여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숙소로 이용됐던 곳이 무릉1리에 남아있다. 체보자 황덕익의 님에 의하면 객사는 무릉1리에 하나와 무릉2리에 하나가 있었다

고 한다. 이후 무릉1리 객사와 무릉1리 객사를 합쳐서 향사가 됐고 지금은 복원되어 노인당으로 됐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 3) 무릉1리와 4·3사건

제보자 황덕익님에 의하면 4·3사건 당시 무릉1리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가 적은 게 사실이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이 불순하단 이유로 경찰에 잡혀갔고 그 인원은 6명이나 된다. 그중 5명(김두규, 황창만, 황덕칠, 황희겸, 김태하)은 목포형무소에 수감중 6·25사변이 일어나자 행방불명이 되었다. 나머지 한사람인 김기옥씨는 제1차검속 때 석방됐다가 6·25사변이 일어나자 제2차 검속 때 송악산에서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 이들 모두가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이들로 젊은 날의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갔다. 제보자가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마치 친구나 옆집 사람처럼 말하자 우리들로서는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제보자 황덕익님에 의하면 경찰들이 다른 마을의 사람을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잡아와 주민들을 소집해서 사상이 불순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며 주민들의 보는 앞에서 총살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폭도들이 내려와 무릉지서를 습격한 때가 있었는데 지서에는 피해가 없고 폭도들만 죽었다고 한다.

우리가 다니는 어느 곳이나 이렇게 4·3의 흔적이 남아있어 마음이 아팠고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게 이 글에서나마 명복을 빈다.

## 3. 인문적 환경

무릉1리는 현재 299세대 남자 411명, 여자422명, 총 833명이다.

<인구 현황>

연령 성별	합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남	411	12	20	14	48	47	47	29	27	34	20	24	24	29	18
여	422	20	11	23	33	36	31	11	22	25	21	25	33	24	43	64

(2000년도 8월 현재, 대정읍사무소 제공)

자치단체로는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영농회, 어촌계가 있고, 관공서로는 대정읍 무릉출장소, 리사무소, 우체국이 있고 금융기관으로는 대정읍 농협 분소가 있다. 청년회는 마을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마을정화 사업을 1년에 2회하며 부녀회는 농약병, 폐품수집을 1년에 3회 실시한다. 부녀회에서는 매년 어버이날과 경로잔치를 각각 1회씩 정기적으로 하며 노인들을 따뜻하게 모시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무릉초등학교와 무릉중학교가 있다.

<무릉 초·중학교 학생현황>

구분		학년	1	2	3	4	5	6	계	유치원
		학급수	1	1	1	1	1	1	6	1
학	초	남	20	10	15	8	15	7	75	3
		여	18	12	10	10	13	9	72	7
		계	38	22	25	18	28	16	147	10
생	수	학년	1		2		3		계	
		학급	1		1		2		4	
		남	9		11		21		41	
		여	16		7		22		45	
		계	25		18		43		86	

(2000년도 현재, 무릉 초·중학교 제공)

무릉초등학교는 1940년 5월 7일 무릉공립국민학교로 설립인가 받아 1940년 6월 1일 개교했으며 1944년 4월 1일 6년제 6학급으로 편성됐

다. 1999년 2월 19일까지 54회 2495명을 배출했다. 무릉중학교는 1954년 5월 22일 무릉중학교 3학급 설립인가를 받아 1954년 7월 15일 개교했다. 1999년까지 45회 4054명을 배출했으며 1999년 3월 1일 무릉초·중학교 통합 개교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릉초·중학교 교직원 현황>

구분	성별	교장	교감	보직	교사	일반직	영양사	기능직	조리사	계
초	남		1	2						5
	여									6
중	남	1		1	2	1(여)	1(여)	1(여)	1(여)	6
	여				7					9
계		1	1	3	15	2	1	4	1	29

(2000년 현재, 무릉초·중학교 제공)

절은 없으며, 교회1개와, 성당1개가 있다. 절은 영락리에 있지만 주민 거의 대부분 불교를 믿는다. 당은 할망당이 1개 있다. 할망당은 병원이 없을 때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빌기 위해 가던 곳이다.

#### 4. 산업구조

제주도의 전형적인 농촌으로 대부분 생업은 농업(71%)이며 감자, 마늘, 콩순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그 외 보리와 벼를 조금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화훼농가가 3가구정도 된다. 바다를 끼고 있긴 하나 어촌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은 미미하다.

<리별 지목별 면적>

(단위 : m<sup>2</sup>/ha)

	계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대지 등	도로	묘지	잡종지	기타
무릉	12,220,692	6,265,821	163,341	947,380	3,421,103	353,222	637,135	194,064	145,787	92,839
	1,222,1	626,6	16,3	94,7	342,1	35,3	63,7	19,4	14,6	9,3

(대정읍사무소 제공)

지역이 넓은 들로 되어있고 농토는 비옥하나 근 몇 년간은 이 지역에 강수량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

<1999년도 하작물 재배면적 조사결과 집계표>

(단위 : ha/호)

영농회	총농가	가을감자	고구마	일반콩	조	벼	참깨	구마늘	양파	쪽파	양배추	대파
무릉1리	178	62.56	0.94	262.93	0	11.98	17.22	53.47	3.30	0	0.50	0.50
농가수		17	3	174	0	14	52	89	6	0	1	1

(대정농협 제공)

어촌계원은 2000년 현재 52명이다. 바다가 오염되어서 연간 채취물은 톳이 1톤, 소라가 0.15톤이 생산되며 그 외 채취물은 아주 미량으로 생산된다. 그리고 포구가 없으며 배는 개인의 가지고 있는데 2개 뿐이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양식장이 하나 있으며 이곳에서는 소라, 보말, 전복등을 생산한다. 개인이 양식하는 양식장은 없다.

가축보유상황은 무릉1리가 미미한 관계로 2리와 함께 조사했다.

	소		염소		말		개		오리		양돈	
	마리	농가수	마리	농가수	마리	농가수	마리	농가수	마리	농가수	마리	농가수
무릉1리	47	1	0	0	0	0	45	15	0	0	0	0
무릉2리	342	7	0	0	0	0	29	10	11	1	11	0

(2000년도 현재, 대정읍사무소 제공)

농기계와 문화 혜택 정도는 다음과 같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차량	오토바이	이앙기
130	42	5	4	34	96	45	11
TV	냉장고	전화	녹음기	비디오	세탁기	컴퓨터	
256	250	242	127	81	194	29	

<제 보 자>

황덕익(73세), 진방인(58세), 강길용(73세), 박창선(70세)

# 方 言

## 차 례

1. 머리말
2. 조사 어휘
  - 1) 농업명
  - 2) 기구명
  - 3) 동물명
  - 4) 지명
  - 5) 해녀

## 1. 머리말

이번 방언 조사에서는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마을에서 2000년 8월 9일에서 8월 12일까지 행하여진 학술조사에서 조사된 방언을 수록하고 있다. 조사하는데 효율을 위해 조사자들은 미리 조사의 기본이 될 어휘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녹음과 필기를 같이 사용하였는데 필기는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들도 있어서 주로 녹음을 하고 나중에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며 자료를 정리하였다. 표기는 『제주어사전』(제주도, 1995)에 따라 하였으며 명확하지 않은 발음들은 기록에서 제외시켰다.

<제보자>

황옥수(52세), 고옥희(44세), 양경팔(83세), 박평화(70세), 김영태(80세)

## 2. 조사 어휘

### 1) 농업명

표준어	무릉마을의 방언형	표준어	무릉마을의 방언형
도끼	도치	타작	태작, 장만
쟁기	잠대, 장기	김매는 노래	사댕소리
농사짓는 일	용사	벼	나록
고구마	감재, 감저	보리	보리
쌀보리	솔후리	맥주보리	줄보리
쪽파	떼마농	녹두	녹디
매밀	므밀	오이	웨
깨	떼	갯잎	유잎
무	놈떡	나물	느물
수수	대죽	보리짚	보리낭
텃밭	우영밭	상추	부루
마늘	마농, 곱대사니	고추	고치
일꾼	놈	품앗이	수늘음
품앗	일کم	밭 놀리는 것	가실왓
밭고랑 단위	한구지, 두구지		

### 2) 기구명

표준어	무릉마을의 방언형	표준어	무릉마을의 방언형
합지박	웨악새기<술박<도구리	도마	듬베
방망이	마께	바구니	둘랭이
빨랫방망이	서담마께, 물마께	시루	시리
다듬이판	안반	맷돌	ㄹ래
연자방아	물뱅이	천막	가빠
삼태기	산태기	아궁이	술강알
거울	강아미	성냥	불괘
방석	줄방석	절구	방엿귀
반진고리	바농쌍지	쇠명예	명예
항아리	단지<망태기<통계	빗	얼레기
단추	단초	두레박	두리박

### 3) 동물명

표준어	무릉마을의 방언형	표준어	무릉마을의 방언형
까마귀	가마귀	고양이	고냉이
돼지	도쾌기, 도새기	소	쇠
반딧불	불난디	감자리	밥줄이
달팽이	돌벨이	지네	주냉이
매미	제열		
숫송아지	부릉이(비고-숫송아지는 나이에 따라 부르기도 한다. 금송(1세), 다간(2세), 사릅(3세), 나릅(4세), 다습(5세), 요습(6세))		

### 4) 지명

- (1) 동산 : 강대기 동산, 논쟁이 동산, 물동산(물동산일래당), 서넉동산, 개동산, 우아동산, 포계동산, 물세운 동산
- (2) 마을 : 개웃동, 구목리/무릉리 사장동
- (3) 터(지경) : 거문머리덕, 가매앞, 고래동, 사장밭(화살터), 상덕, 손당, 쓸대왓, 수마터(수마처), 중덕
- (4) 용천수 : 곤물, 새통, 손당물,
- (5) 못, 우물 : 구남물, 덩불이못, 뺑도못, 흙쟁이, 곤물, 구남수, 독수
- (6) 여 : 가린여, 거문여
- (7) 오름, 골짜기 : 보름이 오름
- (8) 논, 반, 들 : 물검밭(물검반), 통논
- (9) 빌레 : 촌물빌레, 코지빌레
- (10) 독 : 천년의보
- (11) 기타 : 모동장, 장도(장단)

5) 해녀

표준어	무릉마을의 방언형	표준어	무릉마을의 방언형
물수건	까부리	이랫도리	속곳
윗도리	물적삼	소라	구제기
오븐재기	바루	해녀 옷 갈아 입 는 곳	불턱
쌀물, 밀물	물조리	문어	물꾸럭
성계	쿠살	전복 따는 기구	빗창, 줄갱이

## 民 謠

차 례

1. 타령
2. 창작요
3. 노동요
4. 동요

### 1. 타령

#### 1) 꿩노래

이관은 오색이요 벨로는 하춘이라  
일년 열두달 춘풍에 떨어진 낭 열매를  
좃으려고 날아가 이걸 줍고 날아와  
저걸 줍고 날아와 천천히 주욱 가다보니  
난디없는 콩 한방울이 동실허게 나아가  
나는 이 콩 먹겠네 자네 그 콩 먹지 말게  
지나간 밤 꿈을 보니 머리 붉은 사냥개가  
자네 머릴 비어다가 천근만근 무쇄숫되  
아주 땡강 빠져시니 자네 죽을 몽~아닌가  
그리해도 먹겠네 어서 자네 그 콩 먹게  
먹엉 소들소들 죽어가멍 하는 말이

나는 너희 집의 장계들길 칭원하다  
누게 들라 하더나  
나는 너희집의 시집들길 칭원하다  
누게 들라 하더나 하당보난  
고들래끼 죽어부난 정쟁이로 절관허고  
콩잎으로 소렴허여 오손목 객추리로  
설운 소서라 지어놓고  
아이고 답답 나 팔자야  
제천낭군 얻어 만나 새 사랑도 못내붙여  
병이 들어 죽었던가 명이 졸라 죽었던가  
아이고 우리 낭군은 청색복색 바지에  
알롱달롱 저고리에 흰 멥주지세  
모자주는 멥주홍주 동전에 그렇게도 곱더라만은  
너는 왜 까망하냐 곱아가난  
퍼르르 퍼뜩 놀아나부난 장평이 호랑호랑  
나영 살젠 허난 아이고 걸랑 경허랜  
우리 낭군 대주서당 잘 감병시켜주고  
삼년이나 냉겨 살게 영 허드란다

<제보자 : 김순희(여 · 78세)>

## 2) 노랫가락 1

아니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랑  
하세와 같이도 알은 사랑  
광녕화니 영들기요  
이동령은 춘향이랑  
칠년 대한 가문날에  
이빨같이도 관진 사랑

일년 삼백 육십 오일에  
할망 못 봐서 몬살것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잠몬 어이해 못허시나  
장조차 가지고 간 님을  
생각하는 내가 잘못  
들언 살면은 나지질줄  
나도 본 연이 알고있네  
알아서도 편치 못허니  
요런 답답이 어디신디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호리라  
물로 뱅뱅 돌아진 섬이  
점심 끓어서 물질하여  
흔 푼 두 푼 모아둔 은전  
우리 님 술 값도 부족이네  
닐리리닐리 닐리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닐리리야  
인생처생 무상져도  
요 세상에 여자로 나건  
일부야 종사를 못할 망정  
이 모든거야 못헐말지  
얼씨구 절씨구나  
일 년 열두 달 모인 금과  
살던 집 복판에 다 들어가고  
흔 털 삼십 일 험 금전  
백호야 훨훨 가질말어

너 잠을내 아니라  
나물 먹고 물마시어  
팔을 배고 누웠으니  
해가 항보 천륜사하되  
요만하면 할만하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동쪽으로 솟은 달이  
서쪽으로 다지도록  
오실 님은 못 오실 망정  
청노야 방으로 다 들어가네  
하루 스물 네 시간 모인 금전을  
동네야 술집이 다 들어간다  
얼씨구 절씨구나  
닐리리 닐리리 닐리리야  
너와 나와 만날 적에는  
백년의 동결을 하였더니  
닐로 백년을 못 살 망정  
날로야 백년을 못 살 말자  
너도 날 믿고 몬 살 서정  
없는 금전을 한탄을 말고  
짚이 든 정이나 변치마소  
너와 나와 살게만 되면  
궁상 삼십도 너를 두마  
이 삼십도 너를 두마  
우리집에 재산도 너를 두마  
오장창지도 너를 두마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순풍에 돛을 달고  
뱃머리를 돌려봐  
외로이 저가니 외로이 외로이 저가니  
이 밤 처량해

<제보자 : 임덕순 할머니(여 · 78세)>

### 3) 노랫가락 2

산은 처처 청산이여 물은 천천히 녹수로다  
녹수야 흐를 망정 청산이야 대별순가  
녹수청강 흐르는 물에 배추만 씻는 저 처녀야  
가지가지 다 저쳐도 속에 속있을 나를 줌서  
당신 혼자 날갈다고 속에 속있을 달라해요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제보자 : 임덕순(여 · 78세)>

### 4) 노랫가락 3

바람불고 스러진 나무 풍비나 오면은 영할까  
풍비와서 스러진 나무가 바람이나 불면 영할까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제보자 : 임덕순(여 · 78세)>

## 2. 창작요

### 1) 한라산 소리

할루나 산에 눈 쌓이듯  
동남봉 오름에 솔 쌓이듯

대천 바당 물결밀 듯  
간장 타는 그 내로구나  
얼씨로구나 동동 살경질 소리  
지화자 동동에 놀아나보자  
섭진 물에강 쌀이라도  
만데가 없으면 허세노라  
한강물이 소주라도  
먹을 사람 없으면 그만 두고  
얼씨로구나 좋다 정말로 좋네  
요리조리 즐 초른 명물났소

<제보자 : 양오생(여·71세)>

## 2) 가가거겨 소리

가가거겨 가을바람 솔솔 불 때에  
고교고교 고요하니 놀아봅시다  
나나너너 나이가 삼스러질 때에  
노노노노 노래가락 불러봅시다  
다다더더 달 위로 부르는 소리에  
도도도도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라라러려 라비아 어디로 갔노  
로료료료 꽃밭에 잠들었네  
마마머며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에  
모묘묘묘 모다서 놀아봅시다  
바바버버 방울방울 떨어진 눈물  
보보보보 보파리에 싸 두었다  
사사서서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강  
소소소소 소리질렁 우려납시다

아야어여 아이들은 어디로 가고  
오요오요 오지를 아니하시네  
자자저저 자유대로 못하는 세상에  
조조조조 조심하며 살아남시다  
차차처처 찰자리 하다보아도  
초초초초 출질은 하나도 없네  
카카커커 감감한 밤에  
쿄쿄쿄쿄 코고는 소리만 나오  
타타터터 따르르릉 전화나 소리에  
토토토토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파파퍼퍼 팡팡 총소리 날 때에  
포표포표 폭탄 소리 절로 나시네  
하하허허 하야하는 어데로 가고  
호효호효 오지를 아니하시네

<제보자 : 양오생(여·71세)>

### 3. 노동요

#### 1) 물질 흥는 소리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사  
우리나 배는 잘도간다  
이어사 이어사  
우리나 배는 참나무 지은 배여  
이어사 이어사  
높은 낭계 열매러라  
이어사 이어사  
참나무로 지은 배여

이어사 이어사  
너희나 배는 썩은 나무 썩던 배  
이어사 이어사  
혼가 거므 혼 풀려서동  
높은 낭계 열맬너라  
이어사 이어사  
앞이물로 허울치명  
뒷그물로 견어나 잡앙  
어서 갈길 가나보자  
이어사 이어사

<제보자 : 양오생(여 · 71세)>

2) 보리 두드리는 소리

어야허 어야도허  
이되저되 이야홍  
에려보라 어야홍 어야홍

<제보자 : 임덕순(여 · 78세)>

3) 물질 추는 소리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 사공아  
어디강에 하작하야 물에 점점 내려나가네 저라 저라  
저라호여 현 허름만 일르께나 젊은 년들 기십 올랐다  
논을 사나 밭을 사나 있는 대로 사랑거려  
현 허름만 지역에나 앞이 서늘 뒤는 이녁  
우리야 서늘 앞쪽에 놓게  
어여디어 이여차디여 이여차디여 이여

<제보자 : 임덕순(여 · 78세)>

4) 검질 매는 소리

어기어랑 사대로구나  
사대들렁 요 검질 매게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대문으로 가고  
어느제랑 요 검질 매게  
어기어랑 사대로구나

<제보자 : 양오생(여 · 71세)>

5) 방아 찿는 소리

이어 이어 이어도 허랑  
이어 이어 이어도 허랑  
요집 저집 시콜방에  
책을 넘서라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허랑

<제보자 : 양오생(여 · 71세)>

## 4. 동요

1) 애기 흥구는 소리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자는 소리 흥는구나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제보자 : 양오생(여 · 71세)>

## 說 話

차 례

- |                        |             |
|------------------------|-------------|
| 1. 존무덤                 | 5. 부사       |
| 2. 재앙을 막아주는<br>방사탑     | 6. 정의 처녀    |
| 3. 활과 관련된 사<br>장동과 솔대왓 | 7. 오찬이께 이야기 |
| 4. 수마터                 | 8. 오찰방      |
|                        | 9. 고종달이     |

이번 학술조사는 여느 학술조사와 마찬가지로 제보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몇몇의 제보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무릉리에 관련된 제주 설화는 오찬이께 설화 하나 밖에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을의 지명유래 중심의 이야기를 담았고, 그 밖에 제주 장사 설화이야기를 담았다. 제보자를 만나기 어려워 무릉2리까지 조사지역을 넓혔고, 무릉2리는 장사설화를 잘 알고 있기에 같이 수록했다. 특히 오찬이께에 나오는 오찬이굴은 무릉2리에 있어서 제보자가 갔던 경험의 있어서 굴이 특징까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학술조사를 하면서 제주의 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젠 각종 마스크의 영향으로 표준어를 쓰려는 경향이 많았고 또한 조사자들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인식해서인지 표준어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반은 사투리 반은 표준어가 섞이어 어법이 틀리거나 어구가 틀리는 부분도 있으나 제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옮기었다.

## 1. 존무덤 이야기

“존무덤이런건 옛날 아이 죽은 무덤굴아 존무덤이런 헛거여. 옛날에는 홍역 있잖아요. 그걸 구시경허여. 홍역은 옛날에 예방주사도 엇고, 계민 그냥 이제 잇다가 끝나면 죽어 붙잖여. 개민 다 물어 붙잖여. 그걸 보고 존무덤 이런 헛영 질가에 공간, 밧디 공간 헛밭에 다 묻주께. 그게 존무덤이 된거여. 봄나면 문드락하게 무덤이 많아”

<제보자 : 박만월(75세)>

## 2. 재앙을 막아주는 방사탑

방사탑이런 헛거는 한자로 말하면 ‘막을 방’에 ‘소 사’랜 현건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서쪽에 지리적으로 허허니깐 그 옛날엔 방향이 허허니깐 부락 자체가 만나서 부락자체가 잘 안 돼어. 병도 많이 걸리고 옛날에는 전염병이 많이 있잖아요. 홍역 같은거. 가축도 많이 죽고. 옛날에는 미신이주만은 그거를 부락에서 비쳤다고 헛거라. 풍을 비쳤다고 해서 걸로 탑을 쌓은 거라. 재앙을 막기 위해. 육지 7트른 장승을 세웠지만은 여기는 그런 것도 안하고 탑을 쌓았어요. 서쪽에 영 멘빌고 지 몇 군데 싸면 옛날에 지리학적으로 그쪽에 비어서 재앙을 놓은다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 탑을 쌓아서.

<제보자 : 박만월(75세)>

## 3. 활과 관련된 사장동과 쓸대왓 이야기

이 아래쪽에 가옥이 13호나 돼엇는디 그 전에는 그냥 30호가 뵈는디 사장동이라 헛디가 그 지방은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웨지로 나가고 경

이젠 연로 사람, 노인층덜만 살고 있는데 시방 13호쯤 부락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가. 사장동이라 현 이름이 뭐냐면 '쏘을 사'자 이래서 화살을 쏘는. 무예를 닦을 적에 기 동네 가서, 기 전에는 동네가 아니지. 거기는 이제 활 쏘는 장소라 해서 그 유래가 남아있고 또 쓸대왔은 활 쏘는 장소라 해서 쓸대왓이라 한다.

<제보자 : 황덕익(73세)>

#### 4. 수마터 이야기

옛날 우마를 이제 방목 했어요. 그것을 어째서 여기서 우마를 방목하게 됐냐면, 저 가파리에다가 거른 소를 이제 사육하는데 나라에서 경영하는 '뫼시'계. 거기서 방목하는데, 영국배가 넘어가다가 거기 저 거른 소를 발견해서 많이 거기서 이제는 소를 쏘아 먹어 부렸어요. 그래서 인제 그 때가 어느 년도는 인제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 소를 수마터 모동장 현디가 이서요. 모동장 그 거기다가 이제는 방목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거기 수마터, '지킬 수', '몰 마' 이젠 말을 거기서 지키겠다. 수마터 현디가 이제도 있고.

<제보자 : 황덕익(73세)>

#### 5. 부사리 이야기

부사리(숫소의 성기를 말함)는 요 밑이라. 이제 기 장소가 있고 무슨 연유로 부사리라 헛느냐면은 소들이 불이 있으면 너무 와양해서, 와양이라면은 너무 거칠어서 불을 전부 잘랐어요. 불을 전부 잘라서 이제는 거세 있지? 거세를 해서 이제는 방목을 해 나서 부사리 해 나니깐 거기 부사리 말은 내려오는데 이제도 그 지형을 부사리 부사리랜 혀어.

<제보자 : 황덕익(73세)>

## 6. 정의 처녀이야기

정의현에 심센 처녀가 이서서. 이 사람이 새벽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봉양하고 물구덕질허면서 물을 질러와야 할꺼 아니? 그 처녀가 행상을 나가서. 행상차 나가는데 처녀가 길물구덕질 나간다고 해서 마사퀘물 이, 재수 엇게 새벽부터 여자가 길물구덕질 하러 나간덴. 물구덕 진 채 한 쪽 손으로 밀어붙어서. 한 쪽에 여섯 사람, 이쪽에 여섯 사람,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모두 14사람인디 썩 미니깐 몽땅 나자빠붙어서. 개는 그런 사람인디 그 처녀가 물 길르래 가보니깐 뜰돌이 이서. 어디 사람 다니는데 돌이 이시니 허멍 그 뜰돌을 폭 던진게 옆밭에 가근엥 폭 허멍 빠전. 그 뜰돌이 흑으로 막아져 붙어서. 게난 정의 처녀 그렇게 심이 세엇다는 전설이 이서. 게난 물구덕질 허레 다니는데 그거 지장인덴. 일반 어깨 좋은 장정들도 흐쓸밖에 못들으는 건디 그 처녀가 어멍허난 밧창에 이시니 허멍 폭 던진게 옆밭에 던졌는데 그개 흑에 박히니깐 그걸 곡괭인가 뭔가로 뺨챌덴 전설이 이서.

<제보자 : 김주문(62세), 무릉2리 거주>

## 7. 오찬이괘 이야기

오찬이굴이라 헌디가 무릉2리 산 1번지. 자연동굴인디 거기가 천연 동굴로써 길이가 10메다, 폭이 7메다, 고가 6메다. 그렇게 된 동굴인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이거든게. 그개 이제 여기 청 대정굴 있잖 아요. 대정현이 들어온 데건디가, 560년 게난 560년 대정현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무릉 2리 인향동 산 1번지에 숙구 백탄하고 흑탄 여기서 1키로메타쯤 되는데 굴이 있어요. 거니깐 대정현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제 관료와 시민덜 들어와가지고는 그 굴을 퀘서 이제 관아에 제공을 했는데 오찬이가 그 560년 전 사름이지요. 여기가 대 목장이라

낮는데 기신 원심이 세어가지고 배를 채우지 못하니깐 거기 그 굴을 찾아 오라가지고 굴에서 살명 소를 전부 잡아가지고, 여기 목장이니깐 전부다 잡아 먹으멍 살다가 그때 현친현이 잇고 군이 잇고 현에는 현과 군에는 군수 여기는 풍헌 마을에는 정민자 현에서 이제 그 오찬이를 잡으라는 명령을 놔가지고 하는데 그 오찬이를 당뵈, 지금의 사계리를 말합니다. 당뵈 정운디가 잡는데 이 정운디가 머슴이지…… 그 사람이 오찬이를 잡았지요…….

정운디는 부재집 종으로 가버리고 오찬이도 종으로 가가지고는 배가 부르게 먹지 못하니깐 나오라가지고는 소를 잡아서 잡아먹은 거지요……. 종으로 가도 먹음을 잘 못먹쥬……. 한 때에 소를 혼 마리씩 먹는다…… 배를 채우지 못하니깐 오찬이굴에 오라가지고는 소를 잡아가지고는 배를 채웠는데 그때에 당뵈 정운디가 7튼 심도 같았구 굴에서 체포령을 내려가지고는 정운디가 잡았다. 그 오찬이 굴이라고 빌레가 잇는디 오찬이 굴하고 15메다 간격이 잇는디, 것이 떨어시난 빌레. 소고기를 먹다가 더렁 낫당 빌레. 게서 그 빌레가 잇고 오찬이굴로 쪼끔, 약 헌 100메다 물 잇는데 봉근물이라고 먹으면서 살았다. 이제도 그 물이 심니다. 오찬이가 소만 잡아먹은게 아니고 기신도 췌고 허니깐 노루같은 것도 다 잡아먹고 물도 잡아먹고 노루 잡아먹은 흔적이 어떻게 돼나면은 오찬이 굴에서 약 헌측경으로 1키로메다쯤 돼는데 즈록물 이것허는디 즈록수 암사슴물 물이 한경지방인데 즈록물이 반착은 대정지방이고 반착은 함경지방인데 수도 걸기 전에는 그 물을 떠다가 먹고, 헌의 노루가 자꾸 나와가지고, 농장이 가까오니깐 물 먹으레 내려와가지고는 잡아먹고, 오찬이굴 헌디는 7것이 애기지요.

<제보자 : 양경팔(80세), 무릉2리 거주>

## 8. 오찰방 이야기

오찰방이 대정골 사람인데, 사람이 용맹스럽고 원채 잘나 놓으니깐

어릴 때 글도 안 읽고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이라. 하도 장난이 심해 놓으니깐 그 아방이 막대기 들렁 때릴려고 하니깐 남신을 신고 있는데, 돌으니깐 산더레 올라갔거든. 그래 그 아방이 쪼차오난, 낭떠러지에서 그대로 뛰어 내렸거든. 그러니깐 아방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돌아오니깐 아들이 남신 신고 돌아왔다고 하거든. 아방이 아무래도 이상 하거든. 원래 그 아들이 젓 꼬트망에 작은 날개가 달려 있었는데 항상 천으로 싸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했었거든, 부모도 모르게. 경행 아방은 아무래도 이상허니까 아들을 술을 먹였던인가 행, 몰래 살펴보니깐, 날개가 달려 있거든. 병아리 날개 돋은 모양 그때는 조금만 해도 역모랜 행 삼죽을 멸하던 때라. 그러니까 큰일이거든. 경행 하도 절박 하니깐 모르게 절박해가지고는, 그냥은 절박할 수 없으니까, 힘이 하도 세니까, 모르게 절박해 가지고는 인두를 구워 가지고 날개를 지저부러트 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자라면서 생겼던 거주. 그리고 이런 얘기도 이신디, 오찰방 누이가 있거든. 말에 누인디. 누이 뺄 때는 소를 10마리 잡아 멕이고, 오찰방 배었을 땐 소를 9마리 잡아 멕연. 그런데 씨름 대회가 가지고 보니까, 누가 다른 선수들을 막 몰아내는데, 가만 보니까 지 누이거든. 경행 집에 와가지고 어명한테 물어보난 누이 뺄 땐 소를 10마리 잡아멕이고, 자기 뺄 땐 9마리밖에 안 잡아 멕었댄. 경행 누이한테 씨름대회에서 져댄. 경헌디 오찰방이 서울까지 떠 가지고 찰방이 댓거든. 그래서 오찰방이랜 허는 거라.

<제보자 : 양경팔(80세), 무릉2리 거주>

## 9. 고종달이 이야기

고종달이가 어떻게 나왔냐면. 통감 중국 역사의 진나라 시대의 그 시절에 거기 이제 고종달이가 아주 친한이었어요. 천상천하를 전부 아

는 사람이어요. 그러니깐 그 천상을 보니까 그 때는 뭐를 말하냐면은 한라, 영주, 봉내, 방장삼신이라고, 게서 보니깐 대국에서 보니 제주에서 명이 나서 성현이 나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한다 이것이 진시황이 말해가지고 당장 가가지고는 혈을 떠버려라. 거난 사람을, 이 사람 나난디가 지형으로 납니다. 지형이 생수, 생수가 터지는 디서 므율이 웅거한 므율에서 난 사람을 큰 사람이난 인물이 지형이다. 고종달이가 물혈을 뜨는데 지금이 저 지장샘. 지장샘이라고 헌 물이 큰 물입니다. 지장샘이 하나를 못 따가지고는 고종달이가 서쪽으로 해서 차귀로 갔죠. 차귀라 허는 것이 무슨 말이나. 차귀섬으로 배를 타서 차귀로 갔죠. 막을 차자에 돌아갈 귀. 돌아가는 것을 막았던 말이라. 왜 지장샘을 못뗐냐 허면 지장샘은 발 가는 하르방, 헌디 옛날에는 소에 질매를 제와가지고는 쟁기를 썩어 땡깁니다. 쟁기를 집어가지고는 배에 영 굽는디 그 막으니깐 물혈이 거기 오랑 숨었지요. 그래서 그 물굴아 행기물이라 험니다만 그 행기물이 거기 오랑 밧가는 하르방굴아 물을 조금 떠가지고는 질매까지 이내 사발하나 뇌줍써 그 물혼이 사람으로 변행 하르방한테 굴아근영, 그러니깐 물혈이 거기 고브거죠. 고브니 고종달이가 아무리 찾아가지고는 찾아보되 고부랑낭 아래 행기물이라 하는 것을 제주도에 없단 말이나. 그 물혈이 있는데, 떠야 되는데 고부랑낭 아래 질매 아래 행기되서 물 노니깐 고부랑낭 아래 행기물이라 하는 것은 제주도에 엇단 말이야. 그 물혈이 잇는데 떠야 되는데 고부랑낭 아래 질매 아래 행기 되서 물 노니깐 고부랑낭 아래 행기물 그것이 행기 못이다. 게가지고는 그 물을 못 떠서 돌아가겠단 말이나. 차귀로 돌아가는데 한라산 영이 되를 형성해가지고는 고종달이 탄 배를 파손시켜 부렸지요. 고디굴아 차귀섬. 돌아가는 것을 막아부렸죠.

<제보자 : 양경팔(80세), 무릉2리 거주>

## 信 仰

차 례

1. 공인신앙
2. 마을신앙
3. 민간신앙
4. 방사탑
5. 풍수지리

이 조사는 무릉1리와 무릉2리(평지동, 좌기동, 인향동)를 대상으로 하여 크게 공인신앙, 마을신앙, 민간신앙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공인신앙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을 말하는데 무릉에는 두 개의 교회만 있을 뿐 사찰이나 천주교회는 없었고 마을신앙에 있어서도 평지동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서는 그 맥이 끊긴 상태였다. 민간신앙은 당(堂)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을 섬기는 이가 적었고 마을에 있는 당은 방치된 상태였다.

무릉 2리는 세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지동, 좌기동, 인향동이 그것인데 이 세 지역은 마을 형성 자체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부락을 형성한 터라 마을제, 당 등이 서로 다르다. 특히 인향동의 경우 인향동 자체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당을 모셔와 섬기던 마을이다. 현재는 당에 대한 민간신앙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평지동의 경우 아직까지 마을제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다른 곳보다 잘 보존되어 있다.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공인신앙

### 1) 기독교

#### (1) 무릉교회

무릉교회는 무릉리 328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예배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오후 8시 장년과 학생이 함께 예배를 본다. 수요일예배는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5시이고 금요구역예배는 오후 8시에 드린다. 배 장소는 주일 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는 무릉교회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금요 구역예배는 각 구역별로 가정에서 드린다.

#### (2) 평지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지교회는 무릉리 1799번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1986년도 6월 7일 모슬포제일교회에서 개척되어 분립되었다. 담임교역자는 김삼제 전도사님이며 예배 및 시간을 보면, 주일예배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예배는 오후 8시, 구역예배는 오후 8시에 각각 드리며 새벽예배는 매일 오전 5시이다. 교인 현황을 보면 40여 명의 교인이 모이며, 주민들과의 관계는 원활한 편으로, 성탄, 부활 등 절기 행사시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한다.

## 2. 마을 신앙

### 1) 무릉 1리 마을제 : 포제

무릉1리의 마을제는 맥이 끊긴지 40년 이상 지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하지 못했다. 아래의 내용은 마을제가 행해졌을 당시의 것을 황덕인 할아버지의 제보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 (1) 제명(祭名) : 포제 혹은 별제라 한다.
- (2) 제일(祭日) : 음력 정월 택일한다.
- (3) 제관(祭官) : 12제관으로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일주일 간 향사에 거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한다.
- (4) 제물(祭物) : 돼지를 통째로 상에 올리고 과일, 술등을 놓는다.
- (5) 제장(祭場) : 포제동산에서 행해진다.

포제동산은 무릉 1리 구 마을회관 도로변 아래로 2~30m 내려가는 위치에서 있으며 타원형의 동산으로 주위에 나무들이 울창히 있고 그 가운데 돌로 제단이 쌓여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제보자 : 황덕인 부부>

## 2) 평지동 마을제 : 본향제

평지동의 '고바치 본향당'에서 유교식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1) 제명(祭名) : 본향제
- (2) 제일(祭日) : 정월 택일
- (3) 제관(祭官) : 5~7인
- (4) 제장(祭場) : 고바치 본향당
- (5) 제물

멧밥(좁쌀밥 2기, 벼밥, 찰밥 각 1기~4기)

생채 : 미나리, 고사리, 무

생선 날 것 : 비늘 없는 고기는 상 위에 오를 수 없다.

쇠고기, 닭고기(장닭)

祭酒 : 감주

과일 : 씨없는 과일과 복숭아는 상위에 절대 오를 수 없다.

<제보자 : 양경팔(80세), 무릉2리 거주>

### 3) 인향동 마을제 : 별제, 포제

인향동은 마을제가 끊긴지 오래여서 그 흔적이 거의 없다. 아래의 내용은 마을제의 지냈을 당시에 모습을 제보자의 진술에 의해 기술한 것이다.

- (1) 제명 : 별제, 포제
- (2) 제일 : 별제는 정월 정일에 행해지고 포제는 음력 6월 6일 에 한다.
- (3) 제관 : 12제관(초헌, 아헌, 종헌, 여차 짐여, 대축, 알자, 봉작, 봉향, 관수, 전사관)
- (4) 제물의 특징 : 제물은 돼지, 소(통째로 올림), 어물(생선은 비늘이 있는 것), 칠이떡, 솔변, 전변등이며, 음식을 나눌 때 제관의 위치에 따라 음식 양이 다르다. 초헌관이 가장 많은 양을 받고 그 양이 조금씩 작아져 관수는 가장 적은 양을 받는다.

<제보자 : 양경팔(80세), 무릉2리 거주>

## 3. 민간신앙

### 1) 일뿔당(할망당 : 무릉 1리)

물동산 일뿔당은 모슬포 '문수물당'에서 가지 갈라 온 당이다. 매달 7일, 17일, 27일에 가는 일뿔당이지만 택일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축원하는 개별 축원당이다. 이 당의 당신인 일뿔할망은 마을의 본향당신으로 생산, 물고, 호적, 장적을 수호해준다.

- (1) 위치 : 남제주군 무릉 1리 물동산

- (2) 형태 : 타원형의 돌담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는 신복이 중앙에 있고 양옆으로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입구오른쪽으로 신목과 제단이 있으며 신목에는 지전이 걸려 있다. 신목을 중심으로 왼쪽 가장자리 쪽에 돌이 낮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전을 태우는데 그것을 '생꽃을 피운다'라고 한다. 제단은 직사각형의 평평한 돌로 이루어져 음식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다.
- (3) 제일 : 7일 17일 27일인 일태당이지만 택일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축원하는 개별 축원당으로 대체적으로 정월에 많이 찾는다.
- (4) 신체(神體) : 신목(神木)으로 신목의 이름은 닥운작(닥나무, 쿡가시나무)이다.
- (5) 제물(祭物) : 비늘 있는 바닷고기, 젓갈, 과일, 술 등
- (6) 단골 : 무릉 1리 주민
- (7) 특징 : 모슬포 문수물로 가지 갈라라온 당이다.

<일태당>

옛날 가지갈라 넘어오긴	신도로 넘어오랏수다.
요새에 암흑혼 시상 백성이	할마님전이 복을 빌고
맹을 빌젠 비넘이우다.	큰 낭기 덕은 웃곡
큰 어룬 덕은 십네다.	할마님이 못홀 일이
시카꽃과?	이 즈손들
모두 잘 그늘와 줍서.	

<제보자 : 황덕익 부부>

참고문헌 : 秦聖麒, 『濟州巫神宮』, 耽羅人, 1992

2) 고바치(高田) 본향당(평지동)

모동장 출신본향. 혹은 '던드리당'이라고도 한다. 이 당은 정월에 무속적인 당굿이나 가정마다 개별 축원하기 전에 택일하여 유교식 마을

제를 지내는 당이다. 마을에서는 정월이 되면 제관 5~7인을 선출하고, 제비를 모금하며, 수탉, 우육 등 제물을 차려 마을제를 지내며, 마을제가 끝난 뒤라야 집집마다 당에 가서 축원을 한다.

· 당의 유래 : 평지동은 명월 사람들이 주로 이주해온 지역으로 목장지대였다. 이조 중엽 때 모씨성을 가진 감독관이 18명의 목자를 데리고 광목하였는데 그를 모씨 하르방이라 하였고 그의 성을 따른 '모동장'이 생겼다. 모동장이 고바치 본향이다. 소 말등에 전염병이 생겨 목장이 칠소장으로 옮겨가면서 모씨 하르방과 그의 부인 진씨 할망이 한림지역으로 떠났는데 모씨 하르방과 진씨 할망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생겼다.

세월이 지나 소와 말이 병들어 죽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부락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방목 감독관이었던 모씨 하르방, 진씨 할망이 살았던 터에 제를 제내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의 당이 되고 마을제가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집안에 일이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가며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택일하여 제를 지낸다. 제를 지낼 때에는 모씨 부부이외에 당을 담당하였고 지금은 고인이 된 심방 할머니 두 분을 함께 모신다.

- (1) 당명 : 고바치 본향
- (2) 위치 : 남군 대정읍 무릉 2리 평지동 모동장
- (3) 형태 : 돛담으로 둥글게 쌓여져 있고 큰 나무 두 그루가 양옆으로 서 있으며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 안쪽으로 돌담이 둥글게 되어 있어 그 안에 신목과 제단이 있다. 신목에는 지전들이 걸려 있다.
- (4) 당신(堂神) : 모씨 하루방, 진씨 할망, 심방할머니 2인을 함께 모심
- (5) 신체(神體) : 신목(神木)으로 팽나무이다.
- (6) 제일(祭日) : 가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축일날에 찾는다.
- (7) 특징 : 정월에 유교식 제사로 제관을 5~7명 선출한다.
- (8) 본풀이 :

처음에 모씨 하르방, 진씨 할망이, 계셨으니 소와 말을 많이 기르다가 늙으셔도 아들 딸 하나 없어 소와 말을 누구에게 물려줄꼬 걱정을 하다 나라에 바치기로 마을 먹고 임금님께 그 많은 소를 다 바치셨습니다.

진상을 하니 임금님께서서는 기꺼이 받으시고 가상히 생각하셔서 벼슬을 내렸으니, 그 땅을 毛洞場이라 하고 목축장으로 한 다음 모씨 하르방을 그 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많은 목자들을 거느렸는데 그 이름은 명선이, 수득이, 경신이 허신이 등이 있었습니다. 모동장은 단드리장, 셋장, 남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소에 도장을 찍던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태평세월이 흐르다 어느 해 7월 14일날 백중일에 홀연히 하늘로 오르사 온데간데 찾을 길 없었는데 뒷해가 되어서는 므쉬(마소)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고, 물을 먹여도 필요없고, 침을 놔도 헛수라 늙은 목자 하나가 덕망 높으시던 모씨 하르방, 진씨 할마님께 제를 지내면 어떨지 모른다 하여 살던 곳에 제물을 정성껏 차려 제를 지낸 이튿날부터 병들어 다 죽던 말도 기운이 솟아 파딱 일어나고, 졸기만 하다 죽던 소도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이후 죽 계속하다 모동장이 없어지는구나, 구한국시절 므쉬를 육소장에 몰아 갔습니다. 인충이 불어나 곱은 동 동비 고바치에도 하나 둘씩 모여든다. 므쉬를 기르니 잘 컸습니다. 동내 편안, 마소 건강 하니 체지내던 것도 없애버렸습니다. 하루 해는 한 집에서 말들 사와도 죽고, 소를 사다 놔도 죽고 몇 번이나 하여 사람도 기운이 다하고 병이 날 지경에 한 늙은이가 옛날에 비추어 밀쳐야 본전, 제를 지내보자 하여 지성껏 제들을 올려 모씨 하르방, 진씨 할마님께 제를 지냈습니다. 그 뒤에는 소도 건강, 오곡도 풍성, 집안도 편안, 만사가 잘 되었는데 다른 집이서는 아기가 아프는구나 또 다른 집이서는 어른이 병들어 견지를 못하고 밥도 못 먹는구나, 약을 써도 소용 없고, 침을 놓아도 효과가 없어 하여 볼 도리가 없구나. 뛰지도 가지도 못하는 때에 한 할마님이 옛날 일을 거울 삼아볼 때 분쉬 모른 것들 할마님의 은덕

을 잊어버려 할마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은덕을 베푸시는데 받지를 못하는구나. 할마님의 은덕은 생명수라 받으면 받을수록 원기가 솟아 나날이 건강해지고 다달이 행복해지는 것, 제를 지내면 좋은 후가 있으리라 하는구나. 아모커나 정성드려 제를 차리고 진씨 할마님, 모씨 하르바님께 제를 지내니 편안하셨습니다.

이런 일로 고바치 사람들은 모두가 다니게 되어 고바치 본향으로 위하는 것이 옳습내다.

<제보자 : 김주문(62세)>

참고문헌 : 秦聖麒, 『濟州巫神宮』, 耽羅人, 1992

南濟州郡 · 濟州大學校博物館,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1996

### 3) 허릿당(웃빌레질당 : 인향동)

인향동 북쪽 입구서 북북동으로 600m 지점에 위치하고 곳발 서쪽이며 인향동과 월광동 중간쯤이 웃빌레질에서 서쪽으로 30m 지점이다. 제일은 오일이며 神木은 '죽은디낭'이다. 조숫물서 갈라온 당이기 때문에 인향동민 중 극히 소수만 섬긴다. 심방은 없다.

참고문헌 : 秦聖麒, 『濟州巫神宮』, 耽羅人, 1992

南濟州郡 · 濟州大學校博物館,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1996

### 4) 앞새왓당

인향동 남쪽 입구에서 남쪽으로 350m 지점으로 인향동과 모슬포, 신평리와 좌기동으로 통하는 네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인향동민 중 극히 일부만 다닌다. 심방은 없다.

#### 4. 방사탑

무릉 1리 서동 주거 지역 서쪽인 속칭 '암논'지경에 있다. 남북 방향으로 4기가 쌓아졌다. 방사탑의 유래는 서쪽이 허하다 하여 마을의 액을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세웠다고 하는데 제 1탑을 제외한 세 탑은 허물어졌다가 3년 전 문화재 차원으로 군에서 재건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방사탑의 '답'이라 부른다.

1) 탑-1 :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안팎의 차이가 없는 지형에 있다. 크기는 밑지름 390cm, 윗지름 216cm, 높이 220cm이다. 형상은 남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거칠게 깎아진 것과 목, 모자로 구분도리 뿐이다. 석상의 방향이 북쪽에 위치해 있는 3기의 탑을 향하고 있다.

2) 탑-2 : 남쪽 평지에 위치한 것으로 평지에 쌓아졌다. 크기는 높이 170cm, 밑지름 460cm, 윗지름 390cm이다. 현무암 막돌로 허튼층 쌓기를 하고 있으며 속은 잡석채움을 하고 있다.

3) 탑-3 : 북쪽에 위치한 탑으로 평지에 있다. 크기는 높이 150cm, 밑지름 280cm, 윗지름 290cm이다.

4) 탑-4 : 북쪽에 있는 탑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크기는 높이 185cm, 밑지름 300cm, 윗지름 21cm이다.

<제보자 : 황덕인, 김영원>

참고문헌: 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1996

#### 5. 풍수지리 : 무릉 2리에 관하여

물의 흐름과 관련하여 무릉 2리에 있는 세 마을에 대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

평지동의 경우 물이 회전상으로 돌아 앞새앗으로 와서 그것이 멈추

는 회전수인데 그 때문에 단결이 잘되며 좌기동은 물이 들어오는 탐수지라 물이 탐해져 욕심이 세고 물이 즉파선이 되니깐 젊은 사람이 많은 죽는다. 인향동의 경우에는 팔자수인데 사람이 날라고 하면 물이 서쪽으로 쪽 뻗어져야 하는데 왕돌거리라는 동산대무에 물이 꺾어져 흐른다. 그래서 이를 죽은 사람 오줌 같다고 사룡수라 한다. 그래서 인향동 사람들 마음이 살라지고 단합하지 못한다.

<제보자 : 양경팔(80세), 무룡2리 거주>